

코로나 6개월 ... 광주 5대 상권 매출 26% 줄었다

KB 상가정보시스템 상권분석, 점포 3465곳 총 매출1년 전보다 330억원 감소

상무지구 -35.9%, 충장로 -32.7%
전대 후문 -26.7%, 광천동 -17.2%
수완지구 유흥가 -7.5% 줄어
5곳서 점포 140곳 넘게 문 닫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광주지역 주요 상권 5곳의 매출이 1년 전보다 4분의 1 감소하는 등 여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상권에서만 음식점(-67개)과 소매업(-40개) 등 6개 업종 점포 142개가 6개월 새 문을 닫았다.

6일 KB부동산 상가정보 통합시스템 '상권분석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5대 상권 점포 3465곳의 총 매출은 지난 9월 기준 948억6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5.8%(-330억원) 감소했다.

광주일보는 KB상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광주 충장로우체국·유흥여인리공원(전남대후문)·상무지구 메가박스·수완지구대·광천동을 중심 500m 반경 내 점포의 평균 월 매출과 업종별 점포 수 변화를 분석했다. 이 정보는 KB카드 매출과 나이스(NICE)지니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분석결과, 1년 전과 비교해 5대 상권 총 매출 감소율은 상무지구(-35.9%), 충장로(-32.7%), 전남대 후문(-26.7%), 광천동(-17.2%), 수완지구 유흥가(-7.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권 가운데 가장 많은 점포(1144개)가 위치한 충장로 1가 상권의 경우 총 매출은 411억 2000만원에서 276억9000만원으로, 무려 32.7%(-134억3000만원) 감소했다. 1곳당 월 평균 3300만원의 매출을 올리던 충장로 상인들은 올해 들어 월 매출이 880만원 줄어든 2420만원을 나타냈다.

6개월 동안 이곳 상권의 6개 업종 점포 수 변화

를 살펴보니 소매업(-25개)과 음식점(-11개), 여가오락(-4개) 등 22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생활서비스 업종(11개)과 의약·의료(4개), 학문교육(3개) 부문은 점포 수가 늘었다.

전남대 후문 632개 점포의 9월 기준 총 매출은 108억3000만원으로, 1년 전(147억7000만원)보다 26.7%(-39억4000만원) 감소했다. 점포당 평균 매출은 1년 전보다 470만원 줄어든 1710만원에 그쳤다.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소매업(-11개)과 여가오락(-9개), 음식점(-8개), 생활서비스(-8개) 등 의약·의료(0개)를 제외한 5개 업종 모두 점포 수가 총 40개 줄었다.

대표적인 유흥가로 꼽히는 상무지구는 54개 식당이 6개월 새 문을 닫았다. 여가오락(-14개) 업종과 생활서비스(-7개) 등 점포 수는 총 70개 줄었다. 상무지구 상권 총 매출은 326억4000만원에서 209억1000만원으로, 35.9%(-117억3000만원) 급감했다. 이들 점포당 평균 월 매출은 4650만원에서 3430만원으로, 무려 1220만원 감소했다. 6개 업종 가운데 음식점 평균 월 매출액은 1950만원으로, 6개월 전보다 매출이 반토막(-44.1%) 났다.

수완지구 상권 837개 점포의 총 매출은 274억원으로, 1년 전보다 7.5%(-22억3000만원) 감소했다. 소매업 상가(168개)가 전체(243개)의 70%에 달하는 광천동 상권은 매출이 17.2% 감소했다.

김동규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 동안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지역 소상공인들은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인들의 박탈감을 완화해주고, 내년 봄부터 본격 화될 대출 연체 대란을 정부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암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6일 오전 방역 담당자들이 해당 농가에서 살처분된 오리 사체를 화학적으로 분해하기 위해 살처분 장소에 살포할 생식회를 옮기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 주변 반경 3km 이내 농장 10곳 49만3000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영암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비상'

3년 만에 발생 ...농장 반경 3km
닭·오리 50만 마리 예방 살처분

영암의 한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사육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 사육 오리의 절반가량이 밀집한 전남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3년 만으로, 방역당국은 AI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차량에 대한 이동 중지 명령과 함께 AI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 사육 닭·오리 50만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발생농장 소속 계열사 오리사육 60농가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일제검사를 시행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군 시종면 육용 오리 농장에서 지난 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정읍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 1일 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에 이어 전국 3번째 발생이다.

AI가 발생한 영암 오리농장에서는 지난 4일 도 축장 출하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지난 5일 H5N8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

전남도는 AI 항원 검출 즉시 가축방역관 및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통제와 감염 경로 특정을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농장 오리 9800마리를 살처분했다. AI 발생농장 3km 이내 10개 가금농장 닭·오리 49만여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도내 모든 가금류 사육 농가와 차량, 관련 시설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7일 오전 1시까지 발령, 일제 소독을 진행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44개 가금농장, 172만여 마리를 30일간 이동제한 조치했다. 발생지인 영암군의 경우 모든 가금 사육 농장 닭·오리와 종사자들의 이동을 11일까지 통제했다.

소독·이동 통제를 위한 농장 통제조소도 확대,

운영된다. 농장 통제조소는 애초 위험성이 높은 종오리·산란계 농장 등 42개소에서 운영했으나 발생지역 10km 이내 오리·산란계 농장에 26개소, 도내 모든 육용 오리 농장에 180개소 등이 추가 설치, 운영된다.

전남은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역이다. 236농가에서 402만여마리를 사육해 전국 900만마리 대비 44.7%를 차지한다. 종별로는 육용오리 203농가 370만마리, 종오리 33농가 32만마리이다. 단 3농가를 제외한 200농가(367만마리)가 다슬, 제이디팜, 사조원 등 계열사와 계약을 맺고 사육 중이다. 사·군별로는 나주시 61개 농가 105만마리, 영암군 38개 농가 71만마리, 장흥군 17개 농가 26만여마리 등이다. 닭은 401농가에서 2571만마리를 사육한다. 전국 1억9400만마리 대비 11%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토 변창흠·행안 전해철·복지 권덕철·여가 정영애

문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 국토부 장관 교체는 집 값 상승 문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LH 사장 등을 지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장기 공공주택 공급 부분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전해철 후보자는 3선(19~21대) 의원이다. 전 후보자는 진문(진문재인) 핵심인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중 한 명이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긴 하지만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복지부 관료 출신인 권덕철 후보자를 발탁했다. 권 후보자는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정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정영애 후보자는 여성단체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 인사수석을 지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문 대통령이 일부 부처를 한데 묶어 개각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장관을 교체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해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전남 섬여형 5천톤급 연안 크루즈 띄우나 ▶5면

'100시간 멈춤' 불꺼진 광주의 밤 ▶6면

KIA 위더마이어 코치 아쉬운 2020 시즌 ▶18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